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세계 책의 날'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 또 불교인들은 몇 권 정도의 불서를 읽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 순위는 세계 1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지난 22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06) 신문이나 잡지, 학습참고서 등을 뺀 순수한 책 구입비는 가구당 한 달에 7631원이었다.오락에는 10만 원, 술마시는 데 5만 6000원 정도 쓴다고 한다. 평균 책값이 권 당 11,500원 정도라고 볼 경우 가구당 월 독서량은 0.66권 정도이고, 연간으로는 8권 정도이다. 한 가구당 어른이 두 명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의 연간 독서량은 4권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인들의 불서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1년 동안 나오는 불교서적 신간은 350종 쯤 된다. 한 책당 평균 2쇄(약 4천권을 발행한다)면 약 140만권이다. 그리고 이미 구간으로 유통되고 있는 책이 약 1천 5백 종에 이르면, 한 종당 1년에 약 700권이 나간다면 105만권이다. 모두 합하면 약 245만권 정도이다. 그 외 법보시 등을 합하여 아무리 후덕하게 산출해도 300만권은 넘지 못할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책값은 아깝고 술값은 '핑핑'

다음 우리나라 불자를 1000만(통계청 및 불교계 산출)으로 본다면 그 중 절반, 즉 500만은 어른이다. 500만 명이 300만 권을 읽는다면 불교인들의 연간 불교서적 독서량은 0.66권 남짓으로 채 한 권도 안 된다. 우리 불자들이 1년 동안 부처님 말씀이나 사상, 가르침이 담긴 불서를 사는데 쓰는 돈은 많아야 7-8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커피 두 잔 정도의 값이고 따르 3갑, 한 끼 식사 값이다. 10년 전 통계를 따지면 기독교인들은 연간 약 12권을 읽는다고 한다. 불교인 독서

량의 열 배가 넘었다. 물론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사치는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하위(166위)의 독서율을 기록하고, 불교인들은 여타 종교인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을 읽지 않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책을 읽지 않는 우리네 국민성과 경건이나 책을 경시하는 한국불교의 잘못된 풍조에 기인한다. 책을 읽으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다. 어찌 책을 읽으면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말이

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수행을 잘못 지도하고 있는 선각자들의 탓은 아닐까? 선불교 일변도의 왜곡된 가치관이고 깨달음 지상주의의 폐해이다.

독서는 무지(無知)를 추방한다. 인격을 완성하고 어리석음을 추방한다.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 즉 '무지'라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 요즘은 돈을 벌려고 해도 경제 관련서적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무지를 추방하는데 1년에 돈 만원도 안 써서야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무지는 지식과 지혜로 추방해야 한다. 지혜는 책을 읽어야 생긴다.

불서가 없는 불자 가정은 부처님의 법음이 없는 집이다. 가정마다 '불서 108권 장서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를 생활화하자. 불교인들도 올해에는 책 좀 읽자. 유홍이나 오락에 치중하지 말고 불서를 읽는 데 시간을 배려하자. 내 영혼을 위해서이다. 불서를 선물하자. '108권 장서 갖추기 운동'에 총무원, 포교원이 나서야 한다. 언론도 나서야 한다. 지식인과 저자, 불교를 판인론은 모두 분기해야 한다. 이것이 탄탄한 불자를 만드는 길이다. 책을 읽는 한 우리 불교는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다.

불자의 눈

'대장경'의 가르침을 배우자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골수다.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설하신 가르침과 부처님 이후의 역대 스승들이 남긴 귀한 말씀들이 팔만대장경이다. 선불교에서는 문자에 얽매어 자성을 못 보는 것을 경계하지만 경전이 없이는 진리를 전할 방법 또한 얻을 수 없다. 여러 수행 방법이 병존하는 한국불교에 있어 팔만대장경은 매우 귀한 종교적 자산이다.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진 '진리의 말씀'은 불자들에게 밝은 등불이기 때문이다.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주요 경전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를 개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본지와 교종본찰 본사사가 '10대 강백 초경 강설대법회'를 열어 교화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 역시 경전을 통한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고 깨달음의 방향을 일러주는 명징한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

3년간 매월 한 가지의 경전을 해설하는 이 법회는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열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해인사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될 수밖에 없는 '법보종찰'의 이미지가 보태짐으로 경전을 이해하려는 불자들에게 더 많은 환희심을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60년 전 '봉암사 결사'의 정신이 '부처님 법대로'였다. 이 법회가 그 정신을 되살리는 큰 걸음이 되도록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병원포교 더 큰 원력 필요

오늘의 한국불교계에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불교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포교'라고 답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 불교계는 다른 종교계처럼 원활한 포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포교 현상은 늘 허전하다. 계층 포교도 지역포교도 직능포교도 어디 한 군데 매투하게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허전한 포교 현장에서 '병원포교'의 일선성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중생이 아파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포교현장이다. 아픈 중생에게 부처님의 청량법음을 전하는 것보다 확실한 포교가 어디 있었는가? 진정한 포교는 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4월 24일 개원한 고려대 구로병원의 법당은 지난 해 연말 문을 연 고대 안산병원 법당에 이은 두 번째 법당이다. 지천 스님이 발로 몸을 팔아 용품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여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법당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의욕만 있으면 부처님의 법은 어디서나 꽃을 피운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아주 어렵게' 입증해 준 사례라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리 어려웠을까? 우리 불교계의 포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종교자유' 칼럼

9. 종교폭력 법적 책임 묻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부모와 같거나 그 이상의 존재다.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종교적 차별대우는 학생들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할 수 있기에 어른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식을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사에 대해 웬만한 문제 삼지 않는다. 아니, 문제 삼을 수 없다. 그것은 아이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다. 선생님과 학생의 이러한 특수 관계 때문에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크고 오래 간다.

문제 발생 시 학생의 전학이나 교사의 전근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가해자인 교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대로 남아 있고, 종교가 다른 게 무슨 죄라고 학생과 그 가족은 전학과 이사 또 다른 번잡함과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또 문제의 교사를 전근시키는 경우도 학교로서는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 또한 상황의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 옮겨간 학교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감옥 갔다 와 별을 단 민주 투사라도 된 것처럼 오히려 같은 종교를 믿는 다른 교사들의 무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되풀이하면 또 전근을 시킬 것인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단 믿으면 안 된다'며 가톨릭 신자인 학생이 갖고 있는 십자가나 목주를 빼앗아 박살을 내기도 하고, 성경책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구타 등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자 학생들에게 제 돈으로 성경을 구입하여 들고 다니라 하고, 또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



종립학교 학생들이 참선에 앞서 강당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

기까지 하다...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큰 죄인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기란 말인가. 정서적인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기독교인에 게 불경을 들고 다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인권문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면 간단히 통한다.

종교를 이유로 폭력까지 휘두르는 학교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식이 안 통하는 종교적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학교내 종교폭력 민형사 처벌 대상... 인사 불이익 줘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단 믿으면 안 된다'며 가톨릭 신자인 학생이 갖고 있는 십자가나 목주를 빼앗아 박살을 내기도 하고, 성경책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구타 등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자 학생들에게 제 돈으로 성경을 구입하여 들고 다니라 하고, 또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

바로잡기 위한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식이 안 통하는 종교적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종합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두두컴퓨터 TwoTwo
서울 (02)585-1141
금강장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